

영산강 살리기 이슈 점검

4 하천 준설사업

# “물 그릇 커져 생태계 복원” “수심 깊어져 생태계 충격”

‘준설(浚渫)’은 영산강 살리기를 비롯한 ‘4대강 논쟁’의 핵심 이슈다. ‘하천 생태계 파괴’와 ‘생태계 복원’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며, ‘홍수 피해 가중’, ‘안전성이 미검증된 준설토의 재활용’문제도 ‘극과극’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장마전까지 공정률 26%로  
하천 골재는 지자체서 활용  
준설토 농경지 성토도 논란

■ 준설토 이용 계획 단위: 천m<sup>3</sup>

준설토	골재 = (지자체 이관)	사토 (농경지 결함사업)	현장내 유용
27245	4009	7489	15747



지난 17일 영산강 승촌보 공사 현장에서 걸어낸 준설토를 포크레인이 덤프트럭으로 옮겨 싣고 있다. 이 준설토 중 골재는 해당 지자체가 건축 자재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나머지는 농경지 리모델링, 첨단 2산단 등 지역 공공사업장 등에 사용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하천 생태계 파괴’VS‘생태계 복원’=정부는 영산강 전체 구간(111.6km)에 쌓인 2724만5000m<sup>3</sup>의 토사를 걷어내 최저 7.5m~1.5m 수준으로 수심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영산강 전체 구간의 준설량은 약 5%(140만m<sup>3</sup>)수준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장마 전까지 26%(700만m<sup>3</sup>)까지 공정률을 끌어올리고 2011년에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퍼낸 토사 중 골재는 적지않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가 건축 자재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나머지 흙은 인근 농경지의 성토용과 공공사업장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계와 환경단체 등은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대규모 준설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준설 과정에서의 수질 오염 문제를 비롯해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강바닥을 깊게 파내면서 수천년간 지속된 하천생태계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승희 호남대 교수의 경우 최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주체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준설로 수심이 깊어질 경우 어류 생태계의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한반도 고유 담수어가 줄어드는 반면, 외래어종인 블루길, 배스, 토피병 등은 늘어나면서 어류 생태계의 건강성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댐이 있는 곳에만 퇴적물이 쌓이는 게 현재 실정인데, 무수 준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다르다. 물 그릇을 키움으로써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생태계가 복원돼 친환경적인 생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우선, 영산강 유역의 경우 유역면적이 적고 단위면적당 저수용량(18만1000km<sup>3</sup>)이 다른 강에 비해 낮은 점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생활용수·공업용수 등 유지용수 수요량은 증가하는 반면 강 전체적으로 준설이 이뤄진 사례가 없는 탓에 오랜 퇴적에 따라 물 그릇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 준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진영의 준설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질 오염 문제 및 하천 생태계 파괴 주장도 “영향이 미미하고 오히려 생태계가 풍요롭게 될 것”이라는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익산지방청측은 “준설할 때 발생하는 흙탕물은 홍수 때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준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유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천 생태계 파괴 주장에 대해서도 “한강종합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환경부 조사결과, 지난 1986년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 2개를 설치한 한강종합개발 사업 완료 뒤 물고기(87년 42종→07년 71종)와 새(90년 21종→07년 98종)의 종류가 오히려 늘어났다.

◇농경지에 써도 괜찮나? =영산강 준설토를 농경지 성토(盛土·흙을 쌓는 것)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논란거리다. 익산청은 영산강 준설토 748만9000m<sup>3</sup>를 인근 지역의 농경지에 재활용할 계획이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준설된 퇴적토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농경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경지 성토용으로 쓰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가뜩이나 준설과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등 높임으로 농민들이 생계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물 재배에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강 주변 비옥한 농토에 위해성 검사도 이뤄지지 않은 토사를 성토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염된 퇴적토는 발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준설토가 없어서 못할 만큼 농경지 리모델링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반박한다. 익산청도 영산강 구간의 경우 준설토에 대한 성분 검사를 전남대 토양기술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퇴적토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익산청은 또 “전담자를 현장에 상주시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산청 관계자는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 등 중금속 8개 항목을 비롯한, 20개 항목을 분석해 농경지 리모델링에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친환경적 생태 공간으로 되살려 지역민들이 자랑할만한 영산강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영산강 준설토 130만m<sup>3</sup> 첨단 2산단 조성에 활용

LH지역본부, 광주시와 협의

영산강 준설토는 농경지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지역 산단 조성에도 활용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광주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흙을 영산강 준설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말 준공 예정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첨단2산단) 사업이 흙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첨단2산단은 저지대로 성토가 불가피하고 필요한 흙은 덤프트럭(24t) 40만6000대 분량인 487만m<sup>3</sup>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흙은 387만m<sup>3</sup>다. 아직도 100만m<sup>3</sup>가 부족하다. 여기에 첨

단1산단 공장부지 성토에 30만m<sup>3</sup>도 필요해 이를 합하면 총 130만m<sup>3</sup>가 공급돼야 한다. 이는 덤프트럭 10만대, 광주시 동구청 부지(9500m<sup>2</sup>)에 130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분량이다.

LH는 필요한 흙을 영산강 7공구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활용할 방침을 세우고 광주시와 협의 중이다.

영산강 7공구는 서구 치평동 광주천 합류부에서 북구 용전동 용산교까지 14km 구간으로, LH는 이곳에서 130만m<sup>3</sup>의 준설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첨단2산단은 저지대여서 단지 조성에 엄청난 흙이 필요하다”며 “영산강 준설토 활용 방안을 광주시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생의 혁명명기”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이름을 바꾸세요.**

(한번의 포기 끝내버리면 인생에 참여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름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IPALG 트라이슈어 단열복합시트 망수시스템**

1. 방수 및 내마모력 우수 (수분 100% 차단, 내마모력 우수)  
2. 단열효과 우수 (겨울철 보온, 여름철 냉방 효과)  
3. 내충격성 우수 (충격에 강함, 내충격성 우수)  
4. 내화성 우수 (불에 강함, 내화성 우수)  
5. 내산성 우수 (산에 강함, 내산성 우수)  
6. 내염성 우수 (염분에 강함, 내염성 우수)  
7. 내오염성 우수 (오염에 강함, 내오염성 우수)

010-511-0444, 010-6603-0405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이름을 바꾸세요.

(한번의 포기 끝내버리면 인생에 참여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름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062/227-2356, 010-7671-5623

星谷傳統文化研究會